



조계산 자락에서 본 송광사 대웅전 앞마당을 중심으로 겹겹이 들어선 전각들은 활짝 핀 연꽃을 떠올리게 한다.



조계산의 일글 보성스님

“앓과 함의 일체화” 수행자의 본분

지엄함과 자상함으로 '목우가풍'을 몸으로 보여 주시는 보성 스님. 언제나 앓과 함이 일체화 되어야 함을 강조하신다. 1928년 경북 성주에서 나서서 45년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고, 97년 11월 조계총림 송광사의 5대 방장으로 추대되어 오늘에 이른다. 한 순간의 방일도 없이 즐거자의 본분사가 무엇인지를 행동으로서 일깨우시는 산중 어른이시다.

예불 종소리 하늘 땅사이 법열로 가득



조계산 송광사

“객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들 소리만 들었어도 밥 먹어야 하면 밥 먹고, 또 들 소리 듣고...”

가끔씩 씹는 한 스님께, 반쯤 자랑삼아 ‘송광사에 간다’고 했더니 돌아온 얘깁니다. 스치는 바람같이 무심한 말걸이었지만, 어느새 내 귓속엔 개울물 소리 넘쳐흐렀습니다.

“물일썩포 옆에서 새벽 예불 범종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나오. 첫 종소리의 긴 여운만 산 하늘을 넘고, 다시 부풀어오르는 종소리 하늘 땅 사이가 가득할 때, 그 종일감을 법열(法悅)이라 표현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극락이 바로 여기구나 싶어요.”

송광사와 인연 깊은 지인은 또 이렇게 송광사를 말했다.

이리하여 송광사. 하지만 새벽 종소리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소리 울릴 때 즈음

아직 서울의 여름 속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어느 사찰과 달리 송광사는 일주문이 중심 사역에 바로 서 있습니다. 조계산에서 흘러내린 계곡을 열구리에 끼고 있는 앓음새 때문입니다. 그 대신 무지개 모양의 돌다리 위에 세운 누각인 청량각(淸涼閣)이 사실상의 산문 노릇을 합니다.

법계도 형식 가람배치

청량각을 지나 왼쪽으로 계곡을 끼고, 고운 연꽃을 드러낸 넓직한 길을 오르면 ‘대승선종(大乘禪宗) 조계산(曹溪山) 송광사(松廣寺)’라 쓰여 있는 새로 편역이 걸린 일주문이 나타납니다. 일주문을 지나면 또 한번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역시 무지개 모양인 돌다리 위에는 우화각(羽化閣)이 세워져 있습니다. 불국토의 입구를 점여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니 사뭇 달라

보입니다. 함으로 아름답습니다.

우화각을 지나면 곧바로 천왕문입니다. 천왕문을 통과하여 다시 2층 누각으로 된 종고루를 지나자 마침내 대웅전 앞마당입니다. 이 마당을 중심으로 대웅전, 지장전, 승보전과 같은 수십채의 전각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텅빈 마당은 하늘을 내려 놓은 듯한 무한한 공간감을 획득합니다.

한 기와끝도 전각의 지붕들을 온전히 연꽃잎이 되게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송광사 가람의 숨은 특징 하나를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가람의 중심 영역에 탑이나 석등처럼 돌로 된 조형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피어오르는 꽃잎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이러한 외양만으로도 정엄하기 이를 데 없는 사찰이 송광사지만, 어디까지나

보조 스님이 중창...조계종의 연원

國師 16분 배출, 목우가풍 면면히...

송광사의 전각은 법계도 형식에 맞추어 자리잡았다고 합니다. 귀를 맞댄 듯한 전각들 때문에 ‘비를 맞지 않고 도랑을 다닐 수 있다’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새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으면 마땅히 관음전 뒤편에 자리잡은 ‘보조국사 사리탑’ 앞에 몸을 세워야 합니다.

사리탑에 인사드리고 몸을 돌려 세우면 출연히 한 송이 꽃이 피어납니다. 조계산 자락에 피어난 한 송이 푸디란 꽃입니다. 가지런

그것은 결모습에 불과합니다. 승보 종찰(僧寶宗刹)로서의 송광사다운은 그런 외양에 있지 않습니다.

“송광사는 겨울에 풀 떨어지는 절”입니다. 넉넉지 못한 살림 형편이 낳은 말이겠습니다. 다만, 이 말이 품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깊어 갑수하라고도 머물기를 원하는 학인이나 남자의 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정원이 60명인 강원에는 현재 70명의

대중이 살고 있습니다. 방부를 물리칠라치면 막무가내로 버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우가풍(牧牛家風)’이 흐트러짐 없이 이어져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절절한 몸의 언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효봉·구산스님 뒤이어

다 알다시피 송광사는 보조 지불(普照 知訥) 스님으로 하여 크게 떨쳐일어난 절입니다. 신라 말에 해빈(海濱) 선사가 창건할 당시만 해도 그리 큰 절은 아니었고 이름도 길상사였습다. 고려 시대에 들어서는 버려지다시피 한 사찰이었다가, 보조 스님께서 타락한 고려 불교를 바로 세우고자 33세에 팔공산 거조암에서 조직한 정혜결사를 43세가 되던 해(1200년)에 길상사로 옮김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님은 선(禪)과 교(敎)의 합일점에서 마음 닦기의 근본을 세우고 조계선을 선양하니 그것이 곧 오늘날 조계종의 연원입니다. 보조 스님 이후 송광사에서는 조선 초기까지 16분의 국사를 배출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효봉·구산 스님도 오늘의 송광사를 있게 한 한국 불교의 거목이었음을 떠올려 봅니다.

정혜결사의 정신 즉 목우가풍은, 오늘날

까지도 스님들의 삶으로 구현돼 오는 송광사의 빛나는 전통입니다. 그것을 나는 장엄한 저해 예불 의식에서 여실히 봤습니다.

어둠이 빛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저녁 5시 30분. 거침없이 말발리던 북소리가 찾아들 무렵, 낮이 나간 듯 소리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 실루엣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종소리는 어둠의 밀도를 더하면서 사물을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시간의 사슬에서 풀려나 공간화될 때의 신비입니다.

어느새 내 초라한 육신은 대웅전 서린 마루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맹목적인 복종이나 비굴한 낮춤이 아닌 무릎 꿇음을 해 본 지가.

오분향례에 이어지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참으로 장중합니다. 극락조가 있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체부지런 몸을 일으켜 세우며 부처님을 올려다 봅니다. 표정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성스럽고 성스러운 것은 아름답습니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2002 mahamall advertisement featuring a red flower and a green bag. Text includes '마하몰 - 설날맞이 상품전' and '구매하시는(10만원 미만) 오븐 분께 다포 또는 기도포 증정'.

Grid of 24 product advertisements from Mahamall. Items include: 미농 (33,000원), 적송유 GOLD (178,000원), 동종하초 선물세트 (100,000원), 효향정 선물세트 (120,000원), 삼미 동종하초차 (27,000원), 삼보죽염 (105,000원), 한방 미용 비누 세트 (16,000원), 단란세트 '꿈의 작은 꽃 36.5' (248,000원), 건강용품세트 (89,250원), 한방편의 5종세트 (남성용) (45,000원), 한방편의 5종세트 (여성용) (29,000원), 천연관세 이불 (150,000원), 아로마 목초백계 (39,000원), 한방편의 5종세트 (남성용) (25,000원), 아로마 목초백계 (25,000원), 한방편의 5종세트 (여성용) (25,000원).